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43 호

2021 년 2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회원사 및 비회원사 대상 UNGC Open Day 2021 결과 공유(1/22, 1/29)

■ 본부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SBTi 온라인 코스 개설
2. 유엔글로벌콤팩트, 아동노동 종식을 위한 2021 행동 성명서 발표

■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인천시설공단
2. [SDGs 솔루션] 기름 대신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플라스틱

■ UNGC 회원 뉴스

1. 한전 KDN, 인니 3 개 공항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협약
2. 기업은행 역대 최대 여성지점장 배출 정기인사 단행
3. GS 칼텍스, 아모레와 'ESG 경영 협업'
4. 미래에셋, 내부 거래 이사회 의결 의무화...비상장사도 투명성 강화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UNGC Open Day 2021: 1 차 회원사 간담회 결과 공유 (1/2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21년 1월 22일(금) 회원사 15곳, 1월 29일(금) 비회원사 10곳이 참여한 가운데 UNGC Open Day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Open Day는 기본적으로 △2020년 UNGC 성과임팩트 및 지속가능경영 동향 소개 △2021년 UNGC 한국협회 사업 계획 발표 △참석 기업 지속가능성 계획 공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비회원사 대상 간담회에서는 UNGC 소개와 가입절차 및 혜택, 가입에 따른 의무 사항 등이 추가로 안내되었습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ESG의 주류화가 가속화되었다”며, “2021년이 정상으로 복귀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만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도 그에 부응하여 다양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회원사들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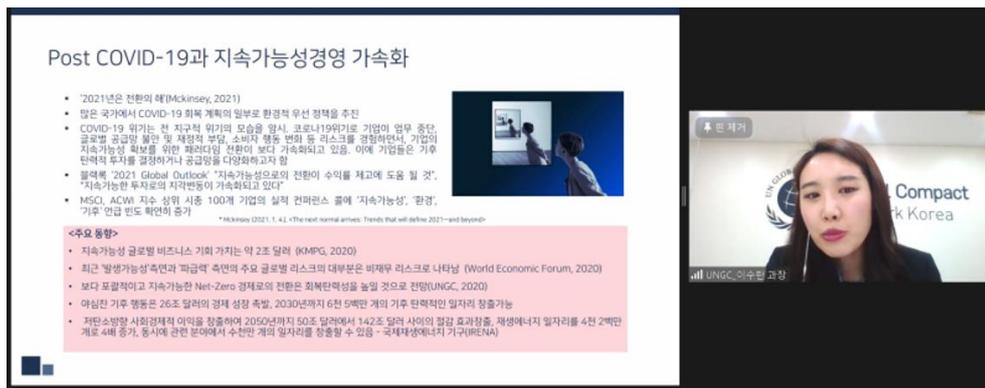


이어서 이수란 UNGC 한국협회 과장이 2020년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사업의 임팩트와 지속가능경영 동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먼저 ‘UNGC 2020년 주요 성과 임팩트’ 에서는 지난 1년간 UNGC가

진행한 'Leaders Summit' 및 'Business Uniting Live'등과 같은 행사의 대내외적 성과를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글로벌 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리더 성명서', TGE 등 한국 회원사들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결과도 공유되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동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속가능경영 가속화 트렌드에 대해 설명하며, △인권 △노동 △기후변화 △반부패 △ESG 등 최근 기업 지속가능경영 트렌드와 전세계적인 법제도 강화, EU를 포함한 국가별 정책 및 2021년 주요 자산운용사의 ESG 투자 동향 등에 대해 브리핑 했습니다. 이수란 과장은 오늘날 기업 지속가능성 강화는 필수적이며,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기업이 이러한 흐름에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은 UNGC 소개와 함께 2021년 UNGC 한국협회 사업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19에도 기업들의 UNGC 10대 원칙 내재화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회의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법-제도 동향 및 다양한 가이드라인 등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상호 학습을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부패, △환경, △ESG, △기업과 인권, △여성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올해 협회 중점 이슈에 대해 소개하며,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활동 및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UNGC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자사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수립하고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회원사 간담회에서는 박재영 UNGC 한국협회 연구원이 UNGC 관심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UNGC의 주요 정책인 △COP/COE △연회비 △로고 사용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가입절차와 관련하여서는 UNGC의 네거티브 스크리닝 과정 및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대한 안내에 기업의 관심이 특히 높았고, COP 등 보고 방식에 대한 문의도 많았습니다.

Open Day 마지막 순서로는 참여 회원사 간 인사와 각 사의 활동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민간 기업에서 ESG를 강화하고자 새로이 ESG 전담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확대를 위한 노력을 나누었고, 공공 기관의 경우, 인권경영이 기관 경영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가이드선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등 애로사항도 공유하였으며, 향후 UNGC 한국협회의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회원사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 활동 관련 문의사항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월에도 2/5, 2/19(회원사 대상), 2/26(비회원사 대상) Open Day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본부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SBTi 온라인 코스 개설



SCIENCE BASED TARGETS

DRIVING AMBITIOUS CORPORATE CLIMATE ACTION

SBTi 코스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과학기반목표이니셔티브(SBTi)와의 면밀한 협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본 코스에서는 SBTi 에 대해 소개하고 SBTi 설정의 이점을 조명하는 등, 기업들이 과학기반목표 설정과 관련한 복잡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학기반목표 설정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후변화가 초래할 최악의 임팩트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UNGC 는 기후 이슈와 관련하여 최신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모든 기업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유지할 것과 2050 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넷제로) 목표에 맞추어 과학기반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온라인 코스는 기업들이 넷제로 미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과학기반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 과학기반목표 설정이 기업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지 여타 기업들과 의견을 공유할 기회도 마련될 것입니다.

본 세션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반목표란?
- 과학기반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 기업이 넷제로 목표와 일관되게 실시할 수 있는 활동들은?

본 세션의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바로가기](#)

2. 유엔글로벌콤팩트, 아동노동 종식을 위한 2021 행동 성명서 발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1 월 21 일, 12,000 개 이상의 회원사들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종식을 위한 노력을 제고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소집한 아동노동 종식 회의에서 본 성명서를 발표하며, “올해 UNGC는 모든 회원사와 함께 인권 실사를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기업의 운영과 가치사슬에서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 대응해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전체론적 접근방법의 적용과 모든 층위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UNGC 원칙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UNGC 회원사들은 최고경영자가 기업 전략과 운영에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 대 분야에서의 10 대 원칙 내재화를 서약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진전 현황을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4 번 원칙과 5 번 원칙은 기업이 “모든 형태의 강제 및 의무노동을 배제”하고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종식”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는 2021 년을 아동노동 종식의 해로 명명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 세에서 17 세의 어린이 1 억 5,200 만 명이 아동 노동의 희생자이며, 그 중 절반가량이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은 이미 취약한 어린이들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수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회적 규범과 성인 및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 부족, 이주와 긴급 재난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아동노동은 빈곤의 산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와 유니세프가 발간한 최근 보고서는 기아 수준이 1%p 상승하면 아동노동이 0.7%p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산다 오잠보 사무총장은 본 성명서가 국제 아동노동 종식의 해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아동노동 및 모든 형태의 강제 및 의무 노동 종식이 UNGC10 대 원칙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업 커뮤니티에서 주요 진전사항이 달성되었으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종식을 위한 정책 활동 영역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다 오잠보 사무총장은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 목표와 실제 활동 간 간극으로 인해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명문 발표 현장에서 산다 오잠보 사무총장은 UNGC 가 글로벌 회원사 네트워크 활용과 주기적인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고착화된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 사측 노동자측 기구, 기업과 시민사회 등 모든 유관 행위자들을 포괄하는 전체론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6 월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에서는 ILO 와 함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에 대한 민간부문 행사가 개최됩니다. 본 행사는 강제노동 종식을 위해 직접 실천하는 기업의 리더들과 인사이트를 나누며, 더 많은 기업들이 민간 부문의 높은 목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인천시설공단



UNGC 가입: 2020. 2. 4.

인천시설공단은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2년 3월 25일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현재 4본부 4실 10사업단 4관의 조직에 총 1,09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경영, 사회적 가치혁신, 인권경영, 가족친화 경영을 경영목표로 인천의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공구매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과 행정안전부 주관 참여협력 선도기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의 혁신대상 사회혁신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선진 우수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나눔과 참여의 사회공헌활동 실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시민과 노사가 함께 면 마스크를 자체 제작하여 인천장애인체육회, 대구시설공단,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11개기관과 단체에 마스크 3,300장, 소독제 1,000개를 전달하는 등 나눔과 참여의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직원 기부금 7,200천원을 전달하고, 임직원이 직접 생필품 키트를 제작하여 지역 쪽방촌, 노약계층,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원과 간부의 자율적 급여 반납을 통해 10,300천원을 취약계층에 기부하고, 임직원 성금 모금을 통해 10,000천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헌혈캠페인에도 총 1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추진

공단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임직원 급여 일부(262백만원)를 지역전자화폐(인천 e 음카드)로

지급하였고, 전통시장 상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구입(17 백만원) 하였습니다. 또한공단 관리시설에 입점해 있는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85 개소 / 2,710 백만원) 하였습니다.



전사적 대응과 감염예방을 위한 종합안전 관리대책 추진

공단은 코로나 19 확산 초기부터 적극적인 상황 대응을 위해 재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CEO 주재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SNS 를 활용한 주/야간 비상근무 체계 시스템 운영, 상황보고체계 유지를 위한 주말 비상근무 실시, 전 사업장 손소독제 비치 및 예방수칙 홍보 등 전사적인 대응과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 이용시설 예방대책 추진

코로나 19 위기경보단계 격상에 따라 공단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4 개 시설을 임시휴관하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방역(1 일 2 회, 전문방역(월 1 회, 안내방송(수시) 등 시설별 방역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적극 동참

공기업으로서 모범적인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우선 CEO 는 특별메시지를 전달하여 전 직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회의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실시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지속적인 안내문자 발송, 대규모 행사 및 출장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 농산물(강화 쌀)을 구매하여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는 지원활동과 지역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 전달 및 김장봉사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입니다.



2. [SDGs 솔루션] 기름 대신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플라스틱



Covestro 사는 다른 산업공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 폼 제조과정의 화학 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Covestro 사는 협력사와 함께 폐기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과 폼 제조과정의 원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처리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 분자를 엮어 폴리우레탄 폼 구조 분자인 폴리올로 바꾸는 새로운 촉매를 만들어낸 것인데, 이 폴리우레탄 폼은 침대 매트리스와 덮개에 흔히 쓰이는 고탄력 플라스틱 재료입니다.

“우리는 기후에 잠재적으로 해가 되는 폐가스를 실용적인 원자재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커스 스텔만(Markus Steilemann) 박사, Covestro CEO

본 프로세스는 폴리우레탄 폴리올 공정 과정에 있어 기존 석유 기반 제조보다 에너지를 덜 소모합니다. 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는 Covestro의 제조시설에 직접 연결된 인근 플랜트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입니다.

Covestro 사는 현재 이산화탄소 기반 원료를 20% 포함한 상업용 폴리우레탄 폼을 생산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제조 과정에서 석유화학물질 사용을 20% 감소시켰습니다. 독일 도르마겐시에 위치한 공장은 플라스틱 폼을 제조하는 기술을 도입한 첫 사례였으며, 향후 유사한 기술을 활용해 고무와 합성섬유를 만들 전망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섭씨 1.5 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배기 저감과 탄소 제거의 두 목표를 동시에 지향해야 합니다. Covestro 사의 탄소 포집 및 활용기술 CCU는 넷제로 경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예시입니다.

플라스틱 생산은 1964년 1,500만 톤에서 2014년 3억 1,100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향후 20년간 2 배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Covestro 의 기술은 대규모 플라스틱 제조에 있어 이산화탄소를 더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줄 전환적 잠재력을 갖춘 생산원료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혁신과 인프라 구축



이산화탄소를 화학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석유를 이용한 화학물질 공정 과정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플라스틱 산업에 지속가능성이 높은 개선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매트리스 제조 산업계에서 플라스틱의 석유 원료를 일부 이산화탄소 원료로 대신할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환경에 부담을 주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Climate action 기후행동



Covestro 사는 이산화탄소를 화학 원료로 사용할 때 제조된 폴리올 1 킬로그램 당 2.7 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배기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 뉴스

1. 기업은행 역대 최대 여성지점장 배출 정기인사 단행



- IBK 기업은행, 지난 19일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역대 최대 여성 지점장 배출
- 본 인사조치에 따른 지점장 승진자 77명 중 여성은 23명으로,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여성 인력에 대한 승진 기회 확대 활동의 일환
- 윤종원 기업은행장, "앞으로도 '공정포용 인사'를 지속하고 인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 미래에셋, 내부 거래 이사회 의결 의무화...비상장사도 투명성 강화



- 미래에셋금융그룹, 다양한 제도 구체화를 통해 투명성, 준법 및 ESG 영역 이슈에서 탁월한 성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 월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 집단 내부거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의 내부거래 비율은 한국 대기업계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이러한 우수한 결과는 대규모 내부 거래와 관련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
-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사외이사 필수 선임, 이사회 의 다양성 보장 등의 제도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 월드 지수'에 9년 연속 선정
- 미래에셋금융그룹 관계자,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일찍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ESG 경영을 선도한 점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배려 있는 자본주의 실천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한경비즈니스

3. GS 칼텍스, 아모레와 'ESG 경영 협업'



- GS 칼텍스-아모레, 지난 28 일 친환경 생산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업무협약 체결
-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허세홍 GS 칼텍스 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는 본 업무협약은 플라스틱 공병의 체계적인 재활용 처리가 그 골자
- 본 재활용 처리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수거한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을 원료로 GS 칼텍스가 친환경 복합수지를 생산함으로써 자원순환 비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
- 관계자, “지난 10 년간 축적해온 친환경 복합수지 기술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플랫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한국경제

4. 한전 KDN, 인니 3 개 공항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협약



- 한전 KDN, 인도네시아 국영공항공사 자회사와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 체결
- 본 협약으로 한전 KDN 은 인도네시아 국영가스공사 및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소재 공항에 태양광 기반 청정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 본 협약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사용 절감에 노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가 지배적인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사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전 KDN 관계자,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구축 경험과 IT 및 전력시스템 기술 공유뿐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로 인도네시아 현지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입니다.

- 여수광양항만공사

2. COP/COE 제출회원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인피니티컨설팅주식회사
- (주)이화다이아몬드공업
- 서울산업진흥원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4 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한국남동발전, 휴맥스, 한국마사회, 한국중부발전,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삼덕통상, 한국부동산원, 두산중공업

<1-4 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사람과세계경영학회, 충북대학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협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사)내부장애인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유엔한국협회, 이젤, 한국임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제융복합협회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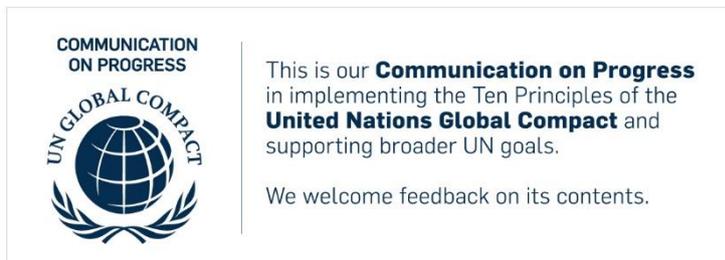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박희원 연구원